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62 호

2009. 12. 11 (금)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행엽/ 편집인 : 김은한/ <http://www.schkim.co.kr> /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제2대 김행엽(金行燁) 회장 취임사



全國의 宗親여러분 安寧하십니까.

지난 11월 16日(陰 9月 30日) 第20次 定期總會에서 宗員 諸位의 薦擧로 新任 會長에 就任하게 되어 그 責任 莫重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約 20余年間 初代會長으로 在任 하시는 동안 金鍾植 會長께서는 많은 業績과 宗親會의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他界하셨습니다.

그 分의 人品과 業績이 너무도 크기에 後任인 저로서는 堪當키 어려운 重壓感을 느낍니다.

전국의 어느 家門이라도 宗親會가 있고 이를 키우기에 余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會長으로 就任하면서 새삼 宗親會에 대한 位相과 責任을 생각해볼 때 宗親會 本來의 目的은 당연히 爲先事에 있다고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한 始祖 아래에 속해있는 우리 順天金氏의 子孫들이 서로 理解하고 和睦하며, 團合해서 他家門보다 월등하게 繁榮해 가도록 서로를 激勵해 가는 일일것입니다. 같은 祖上을 섬기는 우리 後孫들이 서로 理解가 不足하고 自己主張만을 固執하는 것은 祖上을 辱되게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血肉의 情마저도 抹殺하게 되는 지경으로 몰고 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는 다투다가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는 손잡고 막아내는 것이 兄弟이요, 울타리 안에서는 싸우다가도 일단 남한테서 侮辱를 당하게 되면 舍心해서 막아내는 것이 兄弟된 道理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祖上 밑에 있는 子孫들은 모두가 "우리"일뿐. 네집, 내집, 네파, 내파와 같은 區分이 무슨 意味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順天金氏라는 하나인 "우리들"일 뿐인 것입니다.

周知의 事實이지만 宗親會는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利益社會(Gesellschaft)가 아니고 家門을 위해서는 各者가 渾身의 努力을 기울여야 하는 犧牲社會(Gemeinschaft)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自己만의 主張에 앞서 家門을 위해 모든 努力을 傾注해 주실 것을 바

라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數百年間의 名門家로서의 名聲을 守護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巨大하고 華麗한 旅客船도 安全한 運航에 대한 責任은 당연히 船長一人에게 맡겨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船舶이 安全하게 目的地에 到着하기 위해서는 機關士나 操舵手에서부터 하지 않은 清掃夫에 이르기까지 모든 乘務員들이 各者 맡은 바 任務에 한치의 誤差도 없어야만 하듯 船長 個人만이 責任을 다 한다고 巡航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宗親會의 機能도 會長 혼자만이 責任을 진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배에 탄 宗員여러분께서는 항상 共同 運命體안에 同乘해 있음을 自覺하시고 會長이 그 機能을 圓滿하고 安全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協助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機構가 제대로 運營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소속된 成員들의 和合된 마음에 더해서 經濟的인 貢獻도 重要함을 否認키 어렵습니다. 우리 宗親會는 創立當初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經濟的인 自立은 하나의 念願에 그쳤고 初代會長의 個人的인 支援과 더불어 그 裏面에서 物心兩面으로 莫大한 後援을 아끼지 않은 "한화" 그룹의 金승연會長의 厚意에 거듭 感謝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모로 後援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우리 宗員들은 앞으로 宗親會의 財政自立度를 높이기 위해 倍前의 關心과 協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初代會長께서 計劃하시고 推進하시던 事業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宗親會는 企業과 같은 利益集團이 아니라 子孫들이 다같이 같은 祖上을 섬기고 동시에 和睦을 圖謀하는 犧牲 集團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핏줄을 타고 난 兄弟들임을 굳게 銘心하면서 서로 尊重하고 서로 아껴주는 한가족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추운 동절기를 앞두고 일가 여러분의 건강과 태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임원명단

▶ 會長 行燁 (서울)

▶ 名譽會長 相容 (광주)

▶ 常任顧問 學元 (경기도)

▶ 顧問 榮熙 (대구), 喆熙 (서울), 柄錫 (전남), 昌淵 (서울), 贊洙 (전남), 東柱 (경기도), 采源 (서울), 達賢 (서울), 載俊 (서울), 明奎 (울산), 桂在 (경기도), 明在 (경기도), 斗淵 (경북), 仁培 (日本), 沅杰 (경북), 升淵 (서울), 仁燮 (부산), 鳳培 (부산), 相權 (경기도), 榮培 (서울)

▶ 常任副會長 春熙 (전북)

▶ 副會長 炳學 (경기도), 榮穆 (충남), 料元 (광주), 相洪 (경기도), 喆俊 (서울), 秀淵 (서울), 輔淵 (경기도), 東均 (대구), 東哲 (경북), 之煥 (경기도), 炳鮮 (대전), 正雄 (대전), 大永 (경북), 祐永 (부산), 志燮 (충남), 喜遠 (경북), 東泳 (대구), 相煜 (광주), 應烈 (광주), 學淳 (전남), 白源 (전남), 東學 (경기도), 京烈 (경기도), 承燁 (서울), 石載 (경기도), 正熙 (전남), 相默 (전남), 鎮錫 (전남), 景南 (경기도), 鳳煥 (경북), 道淵 (경북), 光弘 (서울)

▶ 運營委員 光輝 (광주), 基錫 (경기), 喆元 (서울), 長元 (인천), 亨民 (서울), 信淵 (서울), 昊淵 (서울), 光在 (경기), 成福 (충남), 井洙 (경기), 興淵 (서울), 賢熙 (전남), 相實 (전남), 相南 (전남), 龍得 (전남), 光淵 (경기), 東元 (충남), 동성 (경북), 東洙 (전남)

▶ 監事 鐘元 (경기), 正熙 (전남)



추계 시향(時享) 소식

시조부군 추향대제 봉행

부군께서는 그 옛날 순천지역을 침노하는 외구를 영웅적으로 토벌하시어 민생을 편케하시었지. 그리하여 공사후에 관민이 그 지방 수호신으로 받들고 고려와 조선에 이어지며 추앙하였고 춘추로 관에서의 제향을 받으신 분이 아니던가. 우리 어찌 공경히 흠모하지 않겠는가!

지난 11월 27일 음력 10월 1일 전국 각지에서 우리 김문 일가들이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오성산하의 시조 사적지 공의 묘전에 서립하여 초헌관에 신임회장 행엽(行燁), 아헌관에 종구(鍾九), 종헌관에 윤재(允在), 축관에 정희(正熙)로 하여 춘희(春熙) 집례로 추향대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우천으로 공의 재사인 국담정사에서 많은 후손 참사한 가운데 초헌관에 漢哲, 아헌관에 鍾彦, 종헌관에 東泳, 축관에 東哲으로 하여 東潤 집례로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전서공(휘 乙財)추향제 봉행

지난 11월 29일(음 10월 3일)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개용대에 모신 추모단에서 고려조의 호조전서를 지내신 전서공조와 공의 자이신 전직 공 휘 오, 孫이신 영주공 碩孫, 曾孫이신 생원공 휘 淮 등 4위의 추향제를 초헌관에 炳學, 아헌관에 石載, 종헌관에 文植, 축에 範載로 하여 炳田의 집례로 봉행하고 선조님들의 추모의 자리도 가졌다.

절재공조 추향제 봉행

지난 11월 28일(음 10월 2일)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후록의 동원에 모신 공의 조고부군이신 증 좌찬성공 휘 台泳과 고부군이신 도총제 증 영의정공 휘 수 조의 묘사에 이어 절재공조의 추향제를 초헌관에 達元, 아헌관에 基錫, 종헌관에 正雄, 축관에 鍾元으로 하여 춘희집례로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이어서 參議公(휘 承珪) 祭壇에서는 후손들이 모여 제례를 올렸다.



(洙鍾), 축관에 상응(商應)으로 하여 중용(重溶)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감찰공 휘 사창(嗣昌) 묘사봉행

충정공 묘사 당일 충정공묘 계하에 모신 충정공의 장자 되시는 감찰공 휘 사창(嗣昌)공께서는 절재공 방조께서 피화되시자 관직을 버리고 입천에 은둔하시다 생을 마쳤다. 석의(石儀)가추어지고 묘역이 새로 단장된 공의 묘전에서 초헌관 동훈(東勳), 아헌관에 태연(泰淵), 종헌관에 봉원(鳳遠), 축관 춘희(春熙)로 분봉되어 중용(重溶) 집례로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상의원공 휘 사원(嗣源) 묘사봉행

충정공의 계자되시는 상의원 정공께서는 성종조에 벼슬하시어 임금의 신임이 돈독 하였고 통정대부 이조참판의 증직을 받으셨다. 근년에 성남시 판교에서 선군의 분묘 가까이인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복비산 묘좌원으로 이조 묘시였다. 부군(父君) 묘사에 이어 오후에 직계손 50여인이 참사한 가운데 초헌관 동식(東植), 아헌관 동선(東先), 종헌관에 상응(商應), 축관 동학(東學)으로하여 윤재(允在) 집례로 공경히 봉행 하였다.

정랑공 휘 유공(洵恭) 묘사봉행

화창한 날씨 속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黑石山下 南隱公 墓所에서 지난 陰十月十日 有字恭, 安字吉, 之字海, 之字守 의 壇祭와 南隱公 時祭에 多數의 後孫들이 參祀하였다.

먼저 壇祭 贊洙後孫의 執禮節次에 따라 初獻 白源, 亞獻 楠術, 終獻 李煥과 祝官 相允이었고, 南隱公 祝祀는 相允後孫에 따라 初獻 相容 亞獻 勝夫 終獻 相龍과 祝官 相實이 엄숙히 祭禮를 병행하였으며 先朝 任들의 陰德을 기리고 後孫들의 繁榮을 祈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南海 芳春書院 金正熙 (근교)



상계조(上系祖) 단제(壇祭)봉행

시조 묘사에 이어 신라와 고려조를 사신 윳대 38위 조상님의 분묘가 실전상태여서 시조묘계하에 봉설한 단소에서는 초헌관에 영배(榮培), 아헌관에 동석(東哲), 종헌관에 상운(相允), 축관에 종구(鍾九)로 하여 춘희(春熙) 집례로 단제가 봉행되었다.

양경공 휘 승주(承靈) 묘사봉행

11월 19일(음10. 3) 조선조 초에 많은 훈공 세우시어 좌명공신에 책봉되신 양경공(襄景公)조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 계신 묘역에 새로이 건립된 부조묘인 경덕사(景德祠)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후손들이 운집한 가운데 공의 위패봉안례를 성대히 올리고 이어서 공의 묘전으로 옮겨가서 묘사를 경건한 가운데 초헌관에 한철(漢哲), 아헌관에 동수(東秀), 종헌관에 행엽(行燁), 축관에 중용(重溶)으로 하여 동석(東哲) 집례로 봉행하였다.

판서공 휘 有儉조 시향봉행

지난 11월 21일(음 10월 5일) 판서공과의 파조이신 승정원 좌승지 증 이조판서의 두룡리 주봉하 묘전에서 30여 후손들이 참사한 가운데 초헌관에 인수(仁隨) 아헌관에 춘희(春熙), 종헌관에 지섭(志燮)으로 하여 장환(長煥) 집례로 경건하게 제향을 봉행하였다.

충정공 휘 유양(有讓) 묘사 봉행

국담공 휘 有濫조 시향 봉행

11월 29일(음 10월 13일) 통훈대부 예조참의를 지내신 국담공 휘 유운(有濫)께서는 양경공조의 장자로서 원종공신이시며 예학에 밝으셨고 계유(癸酉)난을 예견하신 듯 일찍이 안동 구담리로 낙향하시어 우리 김문의 집성지가 되게 하시었다. 향사당일

인조조에 내려와서 증직과 증시(贈諡)를 받으신 휘 유양(有讓)호 매오(梅塢)공의 묘사가 11월 30일(음 10월 4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연대산에 모신 묘전에서 50여 직계손이 운집한 가운데 초헌관에 동훈(東勳), 아헌관에 행엽(行燁), 종헌관에 수종

목재 · 송농공 시제 봉행

순천김씨목재공후손종친회는 2009.7.11(음력 윤달 5.19)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선산에 모셔 있는 목재공(宗漢), 송농공(承璿) 선조묘소 성역화 위선사업을 하였다. 이날 김영목 종친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순천김씨목재공후손종친회는 2009.11.10(음력 9.24) 김영목 종친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후손이 참여한 가운데 목재공, 송농공 시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지평공 김학원 종친회장과 절재공 김종원 종친회장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목재공, 송농공 선조묘소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제 봉행으로 더욱 뜻이 깊은 시제였다.

후손이 참여한 가운데 석물(상석, 들레석), 봉안, 벌안 잔디교체, 주변 잡목 제거 등 목재 · 송농공 선조묘소를 새롭게 단장을 했다.

※ 성역사업에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종친여러분께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 송농공(承璿) 시제 봉행

목재 · 송농공 선조묘소 개수 사업



▶ 기념촬영(목재공 선조묘소 앞)

순천김씨목재공후손종친회는 2009.7.11(음력 윤달 5.19)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선산에 모셔 있는 목재공(宗漢), 송농공(承璿) 선조묘소 성역화 위선사업을 하였다. 이날 김영목 종친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후손이 참여한 가운데 석물(상석, 들레석), 봉안, 벌안 잔디교체, 주변 잡목 제거 등 목재 · 송농공 선



▶ 목재공 · 송농(옥천군수)공 묘소(공사 후)

조묘소를 새롭게 단장을 했다.

※ 성역사업에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종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임원명단

▶理事 峻(인천), 仁煥(충남), 碩禧(대전), 相大(대전), 光元(전남), 西錫(전남), 亨柱(광주), 吉柱(전북), 正市(대구), 淳煥(대전), 永祥(서울), 在錄(경북), 秀禎(경기도), 允在(경기도), 澤洙(경북), 錫淵(인천), 龜淵(서울), 大淵(경기도), 東賢(충남), 秉準(경북), 東春(경북), 奎一(대구), 商根(충남), 淵福(서울), 佶弘(충남), 正琪(전남), 相範(인천), 相允(전남), 賢熙(전남), 仁遂(충남), 商右(서울), 明洙(서울), 東俊(전북), 安千(광주), 東涉(전북), 東勳(전북),

東萬(서울), 斗燮(경북), 道均(강원도), 館旭(인천), 喜遠(경북), 亨在(대구), 志淵(경북), 東一(경북), 光洙(경기도), 重溶(경북), 商應(경기도), 商宇(경기도), 商錫(경기도), 商祐(경기도), 瑞淵(경기도), 漢炅(전남), 瑞淵(경기도), 영규(경기도), 東旭(경기도), 相大(전남), 亨煥(전남), 東濟(충남), 榮鶴(경기도), 泰洙(전북)

▶代議員 順元(경기도), 明載(경기도), 基元(충남), 鐘鉉(경북), 東範(경북), 潤煥(경북), 昌燮(경북), 五鉉(경북), 秉德(경북), 樂熙(부산), 承翼(전남), 勝夫(전남), 相律(서울), 季煥(전남), 亨煥(전남), 仁孝(충남), 長煥(충남), 有煥(충남), 光州(전북), 龍錫(경기도), 海日(경북), 商德(서울), 商珉(경기도), 魚淵(경기도), 世淵(충북), 東元(경기도), 愛淵(경기도), 昌元(전북), 弘仁(대구), 왕선(경기도), 錫元(전남), 동선(경기도), 대석(충남), 海洙(부산), 현국(서울)

虎巖(고 김종식 회장) 記念事業會(가칭)

발 기 문

알알이 영근 오곡백과를 수확하고 보니 어느덧 호암선생이 서거하신지도 벌써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선생의 은덕을 기리며, 아름다웠던 지난날을 가슴에 새기고 작은 추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호암선생은 1935. 1. 10일 충남 천원군 직산면 수혈리 66-1에서 태어나시어 미국 남가좌주 대학원을 수료하시고 대한 공론사 코리아 헤럴드 LA. 지사장과 한국 화약(주) LA 지사장을 역임하셨으며, 미국 한국어 방송 사장과 재미 유학생 동창회 회장 남가주 한인회장등을 역임하시면서 교포 사회의 권익과 한국정부와의 가교역할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귀국 하시여서는 고향인 충남 천안군에서 제 13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시어 국회 재해대책 위원장으로서 재난 서민들의 복지에 진력을 다하는 등 지역사회발전과 나라를 위하여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순

천김씨 중앙총친회 회장으로 조상숭배와 경로효친의 본을 보이시고, 2세들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 사업에도 많은 성금을 출연하여 각계각층에 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난세에 호암선생을 잃은 우리 모두는 큰 슬픔에 잠겨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호암선생께서 뜻다 이룬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작은 정성을 모아 우선 추모기념사업으로 묘비를 건립하여 제막하고자 합니다. 제현 동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성어린 성금으로 묘비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호암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추모사업회를 결성하여 추진코자합니다.

2009. 11.

호암 김종식선생 추모기념사업회 발기인 일동

참고 사항

1. 창립총회는 개별 통지합니다.
1. 묘비 제막 일정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1. 헌성금을 송금한 사람은 전원 본회 발기인이 되며 묘비와는 별도의 돌에 이름을 새깁니다.
1. 헌성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회 계좌에 송금하시고 아래 회원록에 기입하여 우편 혹은 FAX로 본회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칭) 호암 기념 사업회 계좌번호
 신한은행 : 110-280-288410
 예 금 주 : 김 원 필

회 원 록					
성 명		연 령	세	성 별	남·여
주 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주소 :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번지
 신화실 B/D 2층
 전화 : 02)440-2501~2, FAX : 02)440-2505

고 향 소 식

♥♥ 영남 북부권 유림인사 구담에

지난 9월 8일 영주지역향내 유림인사 43명이 관광버스로 우리지역 최대집성촌인 구담을 방문하여 국담정사를 비롯하여 시북정, 답암김용석 비각등을 둘러보고 동리 윤안선생이 배향된 화천서원을 비롯하여 옥연정사, 병산서원을 둘러보았다. 성균관유도회 고문이신 권오걸선생을 비롯하여 전. 현직. 향교 전교및 소수서원. 금성단 전현지도감. 성균관 전학 전의 분들로 구성된 일행들은 우리 문중에서 봉환간사장과 동성종친이 함께 수행하여 친절하고 소상히 하나하나 안내함으로써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우리 문중에 대한 역사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릴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되었다.

♥♥ 병호시비 이제 끝나나

9월 15일 11시. 안동시 풍천읍 풍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안동지역 유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병산서원 당회가 성대히 열렸다. 병호시비에 대하여 서애선생의종손 류영하옹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히 200여년 끌어온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호계서원(전 여강서원) 위패봉안 문제로 불거진 풍산류시의 서애 류성룡 선생과의성김씨 학봉 김성일선생 후손들이 서로 좌.우 위패봉안에 불만이 있어 200여년 시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 도비와 시비로 호계서원을 복설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양 문중이 화해의 물꼬가트이는듯 하였으나 학봉집에서 일부과격한 후손들이 진정서를 내어 반대함으로써 다시 200년전으로 되돌아갈 형편인데 이에 몇몇 문중을 제외한 영남의 모든 문중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원건물만이라도 복설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찬성하는 연서를 받기에 이르른 것이다.

※ 우리 순천김문에서는 동성, 봉환, 진, 동춘등이 참여하였다.

♥♥ 양경공사당 현판. 동영종친이 쓰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우리 중시조 양경공 할아버지 유택이 자리잡은 곳이다. 종택 신축에 이어 사당신축도 이에 그 완성에 이르러 양경공대종회 철회회장님과많은 후손들의 간곡한 여론에 따라 현판 글씨는 석호. 동영종친의 글씨를 받기로 하였다. 석호. 동영종친은 시조 성역지 전남 승주군 주암면 창촌리 동원재 삼문현관 송상문을 손수 쓰셨고 비문은 물론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우리 순천김문의 최대 집성촌의 국담정사 현판은 물론 국담(유은)공의 시를 주련으로 걸었으며 선조시를 열폭 병풍에 담아 국담정사에 기증하셨다. 수백년 이어져온 임계계회 비문도 전면각자도 쓰셨으며 이번 양경공 사당에도 병풍 10폭을 만드셨다.

석호 선생은 이외에도 중앙총친회의 대형 액자 및 우리 종친회 종훈도 병풍으로 남기셨다. 매년 실시해온 대학생 교양강좌에도 빠지지 않고 35m 대형 이벤트를 펼치셨고 많은 종친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작품을 아끼지 않고 회사해오신 우리 문중의 보배로운 분이다. 우리 모두 이분을 본받아 한층 성숙하고 단결된 종친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 기축년 추향제에 참가

- 하회 병산서원 (음 구월중정) 김인섭, 김우영, 김병모, 김동성
- 광덕 화천서원 (음 구월보름) 김동성, 김중현
- 영주 백산서원 (음 팔월하정) 김봉환,(재석)
- 봉현 노계서원 (음 구월하정) 김동성, (재석), 봉환(재석)
- 달성 육신사 - 김동영, 김봉원, 김영희, 김동균

※ 중앙총친회 간사장 김봉환 2009년 9월 4일 성균관 유도회 경북 본부 사업국장에 발령되다

순천지방의 역사와 문화

(註) 그 옛날 우리 시조부군께서 이 고장 수호를 위해 일생을 바치시어 이 지역 수호신으로 추앙 받으신 순천(順天)에 관하여 순천대학교 조원래(趙源來) 교수의 강론의 일부를 3~4회에 나누어 이에 전제하여 우리 관향(貫鄕)인 이 고장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역사의 고장, '소강남'

순천이 행정구역상 역사기록에 처음 나타난 것은 『삼국사기』의 지리지(백제조)이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날의 순천지역에는 삼평군(혹은 감평군)이 있었고, 그 주위에 원촌현, 돌산현, 마로현 등의 작은 고을들이 있었다. 즉 당시 삼평군은 위의 3개현, 현재의 여수 여천 광양지역을 함께 다스리고 있었으니 동부 전남지역의 행정 중심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치소(治所)의 위치는 현재의 순천시 경내인 흥내동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가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된 후 옛 백제땅이 모두 신라에 병합되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있어서도 이 지역은 삼국시대와 차이 없는 행정영역을 유지하면서 지명만 바뀌었을 뿐이다. 경덕왕 16년(757)의 행정구역 개편 때 삼평군은 승평군으로, 원촌현은 해음현으로, 돌산현은 여산현으로, 마로현은 회양현으로 각각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고려 충선왕 때 순천부로 대칭되면서 처음으로 순천이란 지명이 등장한 뒤 오늘날까지 약 7백년간 계속 써온 이름이 바로 현재의 순천이다. 해안 지역에 위치한 이 지방은 고려말 왜구의 침략과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전쟁피해를 겪은 곳이었다. 극심한 피해로 인해 관내 전역이 폐허가 되니 들에는 썩대만 우거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남해바다에 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하여 더할 수 없는 병화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천은 역사적으로 전남 동부지방의 군사 행정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온 고을이었다. 특히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듯이 이 고을은 옛부터 산천이 아름답고 기후가 온화하였으며, 물산이 풍부하고 인심 또한 순후하여 살기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살기좋은 고장의 대명사로 일컬어 온 곳이 중국의 강남이었으므로 조선에서 가장 살기좋은 곳이란 뜻에서 '소강남'이란 별칭을 갖게 된 것이다>(*조현범의 『강남악부』)

2) 文恭王后의 고향 승주목(昇州牧)

후삼국시대에 들어서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의 통일전쟁이 한창일 때 승평군은 후백제 세력권 밑에 있었다. 이 때 견훤의 사위이면서 이 지역출신으로 『고려사』에 그 이름이 뚜렷한 인물로 박영규(朴英規)가 있었다. 그는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한 뒤에 그 역시 고려에 대응하였으며 사후에 순천 해룡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강남악부』에 남아 있다. 아울러 그의 후에 가운데 무예로 크게 이름을 떨친 다음 사후에 순천 인제산신이 되었다는 박난봉(朴蘭鳳) 등이 모두 당시 이 지방의 대표적인 호족출신이었던 순천박씨 가문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고려와 후백제 간의 쟁패기에 견훤을 뒷받침했던 지방 세력이었지만, 왕건의 편에 돌아온 후에는 그의 후원 세력으로서 고려왕조를 적극 지원하였다. 따라서 940년(태조 23) 이들

의 고향인 승평군은 주읍인 승주(昇州)로 승격되었으며, 성종 때 전국 주요지역에 12목을 두었을 당시 그 하나인 승주목이 뒀으므로 오늘날의 호남 지방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고을로 성장하였다.

고려왕조의 개국과 동시에 왕건은 지방세력에 대한 흡수책으로서 당시 각 지방에 할거하고 있던 29명의 호족들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이른바 정략결혼이란 것이 그것이었다. 이 때 전남지역에서는 현재의 순천과 나주 두 고을의 호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순천의 순천박씨와 나주의 나주오씨 집안이 바로 그들이다. 『고려사』「열전」에 의하면 박영규는 태조와 정종의 양대에 걸쳐 이종으로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어 중앙정부와 밀착되어 있었다. 그의 한 딸은 태조의 제17비가 된 동산원부인(東山院夫人)이었고, 또 한 딸은 태조의 둘째 왕자이자 제3대 왕인 된 정종의 제1왕후 문공왕후(文恭王后)가 되었으며, 또 다른 한 딸은 정종의 제2왕후인 문성왕후(文成王后)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고려 건국 과정에서 공이 컸던 지방 토착세력들의 친 고려 성향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고려초 순천지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도 사실이다.

3) 전라도 巨邑-순천도호부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순천은 여러 차례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겪은 뒤 충선왕 때(1310)에 와서 마침내 순천부(順天府)가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순천이란 지명을 쓰게 된다. 그 후 조선왕조의 개국과 더불어 지방통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호가 부에서 도호부로 바뀌었으니 '순천도호부'가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때였다. 조선시대의 순천도호부는 현재의 순천 여수 여천시와 여천군 등 현재 4개 시군의 면적을 모두 차지한 대읍이었다 따라서 관할 경역에 있어서 전라도 최대의 고을이었으며 호구상으로도 전주와 나주 다음으로 세번째 가는 고을이었다(1759년 영조 35년 당시 순천의 호구수는 14,119에 인구 41,869명으로서 전주의 21,175호에 72,773명, 나주의 17,858호에 55,994명 다음으로 많은 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순천은 군사적으로도 조선초기부터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조때 편제된 진영체제에 의하면 순천도호부에 거진(巨鎭)을 둔 지역 방위 체제하에서 보성군 낙안군 광양현 구례현 흥양현 능성현 화순현 동북현의 군사통속권, 즉 오늘날의 전남 동부지역 전역의 군사지휘권이 순천부 사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를테면 당시의 순천은 전라도도 남부지역의 정치 군사 교통 문화의 요지가 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뒤 갑오경장 직후 지방통치체제의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순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도호부의 관호가 군으로 변경되고, 관내의 돌산을 비롯한 주위 도서지역이 순천에서 분할되어 돌산군으로 독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의 여수 여천지역마저 떨어져 나가 여수군으로 독립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읍제가 도입되면서 오늘날의 순천시 중심지역에 순천읍이 설치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949년에 이르러 순천시와 더불어 승주군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95년에 순천시와 승주군이 다시 통합, 새로운 천천시로 발족함으로써 1998년 현재 약 28만의 인구를 보유한 전남 제1의 도시로 발전되어 있다. (*이수광의 『승평지』문제) - 다음호에 계속-

제 20차 정기총회 스케치

시조부군 추향대제 전일인 11월 17일 가락당 강당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일가들 만담한 가운데 우리 중앙총회 제20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봉환 간사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선조님들에 대한 묵념과 고 종식회장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에 이어 간사장의 환영의 인사말이 있었고 회장을 대신하여 비상 대책위를 이끌어온 행협부회장의 "주운 날씨임에도 성황을 이루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는 인사말씀이 있었다.

회칙에 의거한 임원개선 순으로 들어가 상임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하고 회장선출은 전형위원회를 구성 후보자를 천거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원에는 지평공파의 학원, 판사공파의 봉환, 판서공파의 지섭, . 파의 그리고 임시의장 등 5인 위원회의 협의로 전 부회장 행협(行燁)종친을 추천하니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되게 되었다. 그리고 상임 부회장 및 부회장은 일후 종친회의를 거쳐 선출하기로 양해를 받고 2인의 감사로는 절재공파의 종원 종친과 어사공파의 정희종친을 선출하고 신임회장의 "모든 면으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우리 순천김씨 중앙총친회를 이끌어 갈 무겁

고 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으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여러분 종친들께서도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인사말씀을 끝으로 임원개선을 마치고였다.

다음으로 신임회장 주재로 들어가 경남감사의 "회비 수납의 부진으로 재정난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적절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감사 보고가 있었고 결산보고는 시간 관계로 배포된 인쇄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신년도 예산심의로 가서는 미진한 전년도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었으나 이는 특별찬조에 의존할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그리하여 원안대로 전원박수로 결말을 짓고 계속사업인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전임 상임부회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끝으로 기타사항으로 들어가서는 별로 제기된 사안이 없고 시간이 늦어서인지 "이만 마치자"라는 발언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어 오후 7시 가까이 되어 폐회가 선언되었다.

추밀원 사(使) 휘 평(平) 선조

우리 순천김씨 문중에서는 조선조 절재공(節齋公)선조께서 역적의 누명으로 피화(被禍)되시어 세상에서의 냉대(冷待)를 견뎌하여 순천김씨에 관한 문적(文蹟)을 모두 소각 폐기하였다고 전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고려시대를 사신 조상님들의 사적을 알 수 없고 고가승(古家乘)은 있으나 증험할 자료를 못 찾아 그마저도 뗏뗏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러한데 향토 문화사를 연구하시는 정광순(鄭廣淳)선생께서 한편의 자료를 제공해주어 이를 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이던 동주(東柱)종친께서 고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니 고려시대를 사신 14세조가 되시는 휘평(平) 선조의 일부사적과 공이 쓰신 한편의 묘지명(墓誌銘)이었다.

공개서는 명사(名士)들의 비문(碑文)도 많이 쓰셨다고 전하는데 위는 이승장(李勝章)의 묘지명(국립박물관 소장)으로 고려 명종(明宗)대인 1193년 기거랑 지제고(起居郎 知制誥)로 계실 때 쓰신 것으로 그는 동문수화한 일이 있는 교유지간이었다 한다. 이로 미루어 공의 연치(年齒)를 짐작할 수 있으니 50대 초반에 쓰신 것이리라. 이로 보면 공개서 서용되시어 다시 발탁되신 때는 30대 후반이셨을 것이며 사관(史館)의 직사관(直史館)으로 임명되셨으니 문필이 능하셨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고문헌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인 이 자료의 한 부분을 보면 "有金平者 少有文名 金甫當之難....." 이란 말이 있는데 이를 풀이하면 "김평이란 이가 있었는데 젊어서 글로 유명하였다. 김보당의 난(1173)때 장인 한언국(韓彦國)이 처형되자 처자를 데리고 승평군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기탁성(奇卓誠)이 정권을 잡자 김평이 재주가 있어 발탁하여 직사관(直史館)으로 삼았다."라는 말로서 이때는 무신의 난 직후로 김보당 장군이 무신(武臣)들에게 쫓겨난 의종(毅宗)을 복위시키고자 일으킨 난으로 장인인 동북면 지병마사인 한언국 장군께서 연루되어 처형당하게 된다. 사위(女婿)인 공개서도 쫓겨나 향리인 승평군으로 내려가 숨어사신 것이다.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기탁성장군이 문하시중(門下侍中) 평장사(平章事) 관이부사(判吏部事)에 오르자 젊지만 글로 유명한 공을 서용 발탁하여 사관(史館)의 8품직인 직사관(直史館)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 위 자료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실린 관력(官歷)만이라도 살펴서 미흡하지만 어떠한 생을 사셨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明宗 8년(1178) : 왕의 언행, 백관의 행적, 시정(時政)상황등을 기록하는 사관(史館)의 8품직인 직사관(直史館).
- 동 23년(1193) : 왕의 명령인 교서(敎書), 조서(詔書) 등을 쓰는 5품직인 기거랑(起居郎) 지제고(知制誥).
- 神宗 1년(1198) : 경전(經典), 의전축문(儀典祝文)등을 맡아보는 비서성(秘書省)의 비서관(秘書監)으로서 과거시관인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시어 지대성 등 98인을 뽑음.
- 동 2년(1199) : 비서성의 비서관으로 계시면서 또 동자공거(次席試官)로 최득검 등 33인을 뽑음.
- 동 4년(1201) : 성균관격인 국자감(國子監)의 으뜸 벼슬인 대사성(大司成)으로 계시면서 동지공거로서 최종준 등 33인을 뽑음.
- 동 5년(1202) : 왕명의 출납, 숙위(宿衛), 군기(軍機) 등을 맡아보는 나라의 중추기관인 추밀원(樞密院)의 정3품직인 부사(副使)에 오름.
- 동 7년(1204) : 추밀원의 으뜸 벼슬인 종2품직인 사(使)로서 수석시관인 지공거(知貢舉)가 되시어 황극중 등 33인을 뽑음.
- 熙宗 1년(1205) : 졸(卒)하시니 수(壽)가 60의 중반이셨으리라. 위와 같은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에 실린 공의 관력(官歷)

만으로 보아도 20여년 사이에 종 8품직에서 종2품직까지 13단계를 승차하셨음을 순탄한 승차이셨고 그 직마다 높은 학문을 요하는 깨끗하고 중요한 청요직(淸要職)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전반(前半)에는 즉 젊으셨을 때는 사관, 한림원, 보문각 등의 지제고(知制誥) 또는 학사(學士)등 실무직에 계시면서 왕의 사명(辭命)이나 경전(經典)에 관한 글을 짓고 쓰고 하셨을 터이니 학식과 문필을 갖추셨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비서관(秘書監), 대사성(大司成) 등 정사(政事)를 관리하는 위계(位階)에 오르고 추밀원의 사(使)에까지 승차하시어 중신(重臣)의 반열에까지 오르셨으니 학문 뿐 아니라 덕성(德性)까지 겸비하셨기 때문일 것이며 혼돈의 무신정권(武臣政權) 시대임에도 이와 같이 순탄한 벼슬길을 사신 것이 어찌 쉬운 일이셨겠는가.

그리고 예나 이제나 모든 시험에는 여러모로 부정(不正)이 개재하기 쉬운 일로 시관(試官)이라면 학문 뿐 아니라 청렴(淸廉)한 인품이 다라야 할 것이다. 공개서는 여러 차례를 연이어 그 막중한 과거시관을 지내셨으니 학문과 청렴을 겸비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졸년(卒年) 가까이까지 과거시관을 지내셨으니 학과 덕을 갖추신 고매한 일생을 사신 분이라 하겠다. 우리 어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흠숭(欽崇)한 정 금할 길 없도다.

여기서 우리는 공에 관한 고가승(古家乘)의 기록(말미의 註 참조)이 한두군데 숫자의 오류는 있으나 "청량하시고 박학하시며 문장에 능하셨고"등 전반적으로 고문헌의 내용과도 그런대로 합치됨을 알 수 있게도 되었다. 그리고 공의 일부분의 사적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 아쉬우나 한술의 국물 맛으로 술안의 국 맛을 알 수 있듯이 고매하게 사신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말이 많던 고가승의 내용을 그런대로 믿을 수 있게도 하지 않는가. 위의 자료가 한 조각(一片)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자료라 하겠다.

그러한데 우리는 공개서 많이 남기셨을 유고(遺稿) 한편 못 가지고 있고 공의 분묘 또한 실전상태이니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유야 어떠한 우리는 500년 고려시대를 사신 조상님 한분의 사적도 변변히 모르고 있으니 어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공을 흠모하는데 그치지 말고 공의 학문과 덕업을 현양(顯揚) 하기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공에 관한 다른 사적 찾기와 아울러 다른 조상님의 사적 찾기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전일에 한희(漢熙) 종친께서 양경공 선조의 계씨 되시는 원종공신 휘 을귀(乙貴)공을 왕조실록에서 찾아냈듯이 관심과 노력 여하에 달린 일이라 할 것이다.

이만 줄이고 겸하여 위의 정광순 선생과 김동주 소장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註) 공에 관한 고가승 내용

“忠貞 淸亮 博學 能 文章 直史觀 明宗二年 癸酉 復僻之難 坐於妻父之故 黜之 隱于 白雲山 神宗二年 召拜 參知政事 九月 同知貢舉 取士十一人 配韓氏 忠臣彦國之女”

(충직하고 청렴하시며 학문이 넓고 문장이 능하셨다. 직사관으로 계시던 명종2년3년) 계유(계사)에 김보당이 일으킨 복벽지난(원 임금 금을 모시고 저한난)에 연좌된 장인으로 말미암아 관직에서 쫓겨나 백운산에 은거하심. 신종2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직하시어 참지정사(?)로 계시던 9월 동지공거가 되시어 11인(33인)을 뽑음. 배위는 한씨로 충신 언국(彦國)의 따님이심.)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9년 8월 1일부터 ~ 2009년 11월 30일까지

부외장

- 1. 김진석 2009. 8. 17 전라남도 해남군
- 2. 김상용 2009. 10. 13 광주광역시 서구
- 3. 김학원 2009. 10. 13 경기도 고양시

간사

- 1. 김동원 2009. 11.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사

- 1. 김영환 2009. 8. 10 전라북도 정읍시
- 2. 김현희 2009. 8. 20 전라남도 해남읍
- 3. 김성복 2009. 8. 25 충청남도 계룡시

대의원

- 1. 김해수 2009. 8. 14 부산광역시 남구
- 2. 김동구 2009. 11. 30 경기도 고양시

회원

- 1. 김찬정 2009. 7. 22 충청남도 부여군
- 2. 김익희 2009. 7.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 3. 김덕환 2009. 7. 24 충청남도 보령시
- 4. 김영식 2009. 7. 27 경기도 용인시
- 5. 김희환(희천) 2009. 7. 28 경기도 수원시
- 6. 김주락 2009. 7. 31 울산광역시 중구
- 7. 김동욱 2009. 7. 29 전라북도 전주시
- 8. 김용태 2009. 7. 29 광주광역시 북구
- 9. 김영일 2009. 8. 4 경기도 안산시
- 10. 김흥연 2009. 8. 5 경기도 성남시
- 11. 김록산(녹산) 2009. 8. 4 강원도 인제군
- 12. 김이연 2009. 8. 5 경기도 용인시
- 13. 김영순 2009. 8. 5 강원도 철원군
- 14. 김동근 2009. 8. 6 경기도 시흥시
- 15. 김태연 2009. 8. 6 서울특별시 성북구
- 16. 김동주 2009.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 17. 김상용 2009. 8. 6 제주도 제주시
- 18. 김상일 2009. 8. 7 경기도 고양시
- 19. 김재순 2009. 8. 7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 김귀순 2009. 8. 7 서울특별시 서초구
- 21. 김윤택 2009. 8. 5 전라남도 담양군
- 22. 김귀원 2009. 8. 5 전라남도 담양군
- 23. 김윤배 2009. 8. 6 전라남도 해남
- 24. 김병혁 2009. 8. 7 부산광역시 영도구
- 25. 김양춘 2009. 8. 7 부산광역시 남구
- 26. 김타관 2009. 8. 7 울산광역시 북구
- 27. 김용훈 2009. 8.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 28. 김동철 2009. 8.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 29. 김상욱 2009. 8. 7 경상북도 영주시
- 30. 김종삼 2009. 8. 6 경상북도 안동시
- 31. 김종훈 2009. 8. 7 강원도 강릉시
- 32. 김순희 2009. 8. 10 강원도 철원군
- 33. 김방헌 2009. 8. 7 경상북도 안동시
- 34. 김동인 2009. 8. 10 경상북도 문경시
- 35. 김춘희 2009. 8. 10 경상남도 사천시
- 36. 김지덕 2009. 8. 12 충청남도 보령시
- 37. 김종삼 2009. 8. 10 경상북도 안동시
- 38. 김수형 2009. 8. 7 전라북도 익산시
- 39. 김동준 2009. 8.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 40. 김중하 2009. 8.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 41. 김수광 2009. 8. 17 인천광역시 부평구
- 42. 김엽섭 2009. 8.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 43. 김호연 2009. 8.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 44. 김창환 2009. 8.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45. 김학연 2009. 8. 18 경상북도 문경시
- 46. 김영관 2009. 8. 19 충청북도 괴산군
- 47. 김광순 2009. 8. 20 전라남도 여수시
- 48. 김성연 2009. 8. 20 울산광역시 남구
- 49. 김정희 2009. 8. 21 충청북도 청주시
- 50. 김정희 2009. 8.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 51. 김종락 2009. 8. 24 경기도 이천시
- 52. 김태석 2009. 8. 24 충청남도 보령시
- 53. 김중희 2009. 8. 24 광주광역시 북구
- 54. 김동연 2009. 8. 25 경기도 고양시
- 55. 김성희 2009. 8.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 56. 김동욱 2009. 8.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 57. 김학주 2009. 8. 26 경기도 남양주시
- 58. 김남수 2009. 8. 26 경기도 연천군
- 59. 김종식 2009. 8.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60. 김상희 2009. 8. 27 광주광역시 동구
- 61. 김종구 2009. 8. 27 전라북도 전주시
- 62. 김지일 2009. 8. 31 경기도 광명시
- 63. 김상진 2009. 8. 31 전라남도 해남읍
- 64. 김정관 2009. 8. 31 경기도 평택시
- 65. 김병현 2009. 8. 31 전라남도 영암군
- 66. 김상열(렬) 2009. 9. 3 전라남도 해남군
- 67. 김귀영 2009. 9. 9 전라북도 전주시
- 68. 김 명 2009. 9. 15 경기도 양주시
- 69. 김용연 2009. 9.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 70. 김용욱 2009. 9. 14 전라북도 완주군
- 71. 김상경 2009. 9. 16 광주광역시 북구
- 72. 김영도 2009. 9. 21 경기도 안성시
- 73. 김안천 2009. 6. 1 광주광역시 동구
- 74. 김동수 2009. 9. 29 경기도 연천군
- 75. 김동언 2009. 10. 20 전라북도 임실군
- 76. 김동학 2009. 10.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 77. 김동국 2009. 10. 30 경기도 고양시
- 78. 김창희 2009. 11. 2 경상북도 구미시
- 79. 김해동 2009. 11. 9 서울특별시 관악구
- 80. 김종환 2009. 11. 25 강원도 원주시

무명인

- 1. 2009년 8월 5일 농협/고양축산
- 2. 2009년 8월 6일 대구은행/신천4동지점
- 3. 2009년 8월 7일 농협/강서농협
- 4. 2009년 8월 10일 기업은행/뚝섬역지점
- 5. 2009년 8월 11일 국민은행/금곡동지점
- 6. 2009년 8월 24일 신한은행/수락산역지점
- 7. 2009년 8월 28일 구룡농협/외산지점
- 8. 2009년 9월 1일 부산/대연동지점
- 9. 2009년 9월 28일 농협/경산정평농협

사랑과 화합의 연리지

얼마전 아는 분의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받아 주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연리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우연히 충북 제천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인근에 꼭 보고 싶었던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연리지가 되어 서 있는 소나무였습니다.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가 서로 맞닿은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 서로가 합쳐져 한 나무가 되는데 가지와 가지가 합해서 한 나무가 된 것을 연리지(連理枝)라고 합니다.

가지와 가지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로 두 개의 몸이 한몸이 된다 하여 사랑나무라고도 부르지요. 결혼하는 두 사람이 사랑의 연리지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리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들어서 가까이 서 있다고 바로 연리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을 때 마침내 연리지가 됩니다. 결혼한 후 사람이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터이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며 오랜 시간 사랑을 키우며 사랑의 손을 마주 잡기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연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나고 혼나는 것이 결혼이라 하던데 그런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너와 나라는 경계가 없어져 마침내 우리가 될 때까지 말이지요. 연리지를 이룬 나무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서로 수액을 빨아들이지만 하나로 만나 가지로 통해 서로의 수액을 한 몸처럼 나누고 있으니 말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결혼을 하여 살다보면 낯설게 보이는 것도 눈에 띌 것이고 서로 오해하고 싸우는 일도 있을 터 그럴수록 끊임없이 가장 소중한것을 나누라 전했습니다.

이해와 격려와 위로와 신뢰와 사랑을 나누며 살다보면 마침내 두 사람은 세상이라는 대지 위에 사랑의 연리지로 설수 있다고 전했지요. 두 사람이 연리지로 설때 세상 더욱 아름다울거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그늘에 들어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 축복했던 주례사가 떠올라 금년 시조 모제에서 다시 상기해 보면 중친회의 숙원인 화합이라는 염원의 뜻을 이루겠다는 고민을 풀어 안고 안타깝게 타계한 전 회장을 보내는 쓰라림에 다시 연리지가 떠오른것은 우리에게 화합의 연리지가 없는 것일까. 뿌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조상을 섬기는 후손끼리 가장 소중한 하나가 되는 화합된 자리가 왜 불가능 했을까. 원망도 하면서, 원컨대 뿌리가 다른 연리지가 있듯이 한 뿌리의 후손인 우리 중친회의 화합된 연리지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기원해 봅니다. (김상용)



Great Challenge

시작만으로도 도전은 이미 위대합니다
도전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